

최상의 의류 소재에 붙이는 실키라는 이름

실크와 같은 색상과 광택, 실크와 같은 발색, 실크의 가볍고 부드러움 등이라고 하듯이 실크는 최상의 천으로 다루어 오고 있다. 라미는 리넨과는 달리 그의 색은 하얗고 매끄러운 표정을 지니고 있다. 라미에는 독특함을 지니고 있어 견마라는 형용이 붙어 있다. 라미의 개성은 경시되어 실키라고 하는 것은 라미에 붙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크와 같은 광택과 피부 촉감을 면직물에 부여하도록 하는 방법이 실켓트가공(머서화 가공이라고도 한다)이다. 면에는 면다운 맛이 있다. 서민적 존재의 면도 그것의 최고봉은 실키이다. 실키라고 할 때의 견이라고 함은 가잠에 의한 정련직물을 말하고 따라서 련견이라고 한다. 우수하지만 다루기가 쉽지 않다라던가 값이 비싸다라고 하는 약점이 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레이온이나 아세테이트, 폴리에스터 섬유 등의 화합섬 필라멘트 직물이다. 실키라 함은 화합섬직물에 의한 실크와 같은 직물 옷감에 대하여 사용하는 형용어다.

제직에 의하여 나타내는 모양(직물 무늬)은 프린트에 의하여 나타내는 모양과는 다른 인상을 준다. 제직하여 나타낸 모양은 무늬와 색상을 수반하는 경우라면 바탕색과 무늬색이 같은 색상인 경우도 있다. 부직물이라고도 부른다. 부직물은 프린트 옷감의 원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제직에 의하여 나타난 색상 무늬는 프린트에 의하여 나타낸 무늬 모양보다도 깊이라던가 두께, 무게가 있다. 프린트에는 색상 무늬의 표현의 자유로움, 부드러움, 가벼움, 투명감이 있다. 섬세한 무늬를 짜내기 위해서는 잔털이 없고 매끄럽고 가는 실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조건에 합당한 것이 련견사로써 련견사는 생사의 상태로써 정련한 것이다. 이러한 련견사를 사용하여 자카드 직기로써 무늬물로 한 직물을 문직이라고 한다. 색상 무늬를 정교하고 치밀하게 짜는 제직사는 련견사와는 다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최고급 옷감을 제외하고는 폴리에스터 섬유라던가 아세테이트 섬유 등의 필라멘트사를 사용하는 것이 옷감에 자주 사용하고 있다. 색사를 사용하여 자수 하듯이 무늬가 떠오르게 제직한 옷감이라던가 이중직으로 겹감이 물 풍선과 같이

부풀어올라 있어 안감과의 사이에 간격이 있어 바람이 잘 통하는 감을 느끼는 무늬가 있는 옷감(후쿠로라고 한다) 등이 있다.

시폰 벨벳 옷을 입고 앉아 있는다던가 비에 젖은 채로 두면 아름다운 모우가 누워버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모우가 한번 누워버리면 끝장이다. 시폰 벨벳은 바탕이 견이고 모우가 레이온 벨벳이다. 가볍고 피부 촉감이 부드럽다. 벨벳은 비로도라고도 한다. 이러한 벨벳의 모우는 모우로 만들기 위하여 경사를 이중으로 사용하고 있다. 모우라고 하지만 기모가공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경사를 절단하여 만들고 있다. 이러한 모우는 모방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모우라던가 모방은 위사를 절개하여 만들기 때문에 벨벳의 예는 아니다. 우리들과 친숙한 벨벳틴이나 코듀로이 등은 파일상으로 한 위사를 절단하여 모방을 만들고 있다. 견벨벳은 초고급의 옷감이다. 유럽의 왕후 귀족들만이 사용할 수 있던 옷감이었다. 시폰 벨벳은 옷깃에 사용하기도 하고 솔이라던가 피아노 연주회의 의상으로 사용된다. 그러한 까닭에 서민의 실용적인 옷에는 부적합하다. 견 옷감은 물에 젖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젖지 않도록 우천시에는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 시폰벨벳(chiffon velvet): 얇은 벨벳의 하나

바닥의 경사, 위사에 견사를 사용하고, 파일경에는 레이온, 인견사 등을 사용하여 경이중조직으로 만든 파일직물이다. 시폰이란 얇고 비쳐 보이는 일종의 경위크레이프를 말하는데, 이것을 벨벳 등의 파일직물 이름 앞에 붙인 것은 벨벳으로서는 바닥이 얇다는 뜻으로 쓴 것이다.

종류로는 바닥의 견사와 파일의 레이온사와의 염착성의 차이를 이용한 광선에 따라 빛깔이 변하는 것과, 엠보스가공으로 무늬를 나타낸 것 등이 있는데, 가볍고 비교적 부드러워 이용도가 높고, 최근에는 합성섬유만 가지고 만든 것도 생산되고 있다. 용도는 여성복지, 솔, 장식품 등이다.

매끄러운 련견한 천을 비벼 빨면 잔털이 일어나 보양게 된다. 이러한 상태로 된 견직물은 지금까지는 좋다고 평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세탁에 바래기도 하고 오래 입은 듯하게 잔털이 일어난 (피브릴화라고 한다) 옷감을 좋다고 하는 유

행이 일고 있기 때문에 잔털이 일어나 희뿌옇게 된 실크 옷감에 관심이 일고 있다. 워셔블 즉, 세탁하여 잔털이 일어난 실크옷감은 가잠견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이기도 하고 그의 취급방법에 신중을 기한다. 워셔블 실크에 유사한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옷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들 종류로는 피치 페이스, 박기모조, 파우더조 등을 칭하는 것이 이들이다. 정제 셀룰로스의 일종인 텐셀도 잔털이 일어나 희뿌옇다. 천의 면에 짧은 모우를 가지고 있으면 색상은 희뿌옇게 보인다. 소프트하게 느껴진다. 모우가 비벼 빨면 생기는 것으로는 진 제품의 수세가공도 있다. 진의 옷감인 데님은 수세가공에 의하여 인디고 블루가 탈색되어 연하게 되는데 짧은 모우가 생기고 있다. 이들이 어울려 어느 정도 매력을 나타내고 있다. 모우를 생기게 하는 방법은 천의 면을 당겨 침포라던가 샌드페이퍼로 문질러 내는 것으로 이것을 기모가공이라고 하여 자주 활용한다.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직물에도 기모가공이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샌드페이퍼로 문지른다. 이것을 샌딩이라고 부른다. 기모가공에 의하지 않고서 섬유 자체가 모우가 있는 감을 나타내도록 하는 구조로 된 폴리에스터 섬유도 있다.